

研究노트

精神分裂症과 非行集團間의 性格特性 差異： ‘P’와 ‘E’次元의 連結

李仁惠·柳希姪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H.J. Eysenck의 차원적 성격이론을 기초로 하여 정신분열증과 비행의 두 이탈집단을 정신병적 경향성과 외-내향성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각 30명씩의 세 집단의 피험자들은 모두 20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으며, 치료중인 정신분열증환자, 수감 중인 비행소년 그리고 통제집단으로는 대학생들이 사용되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한국판 "성격차원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정신분열증과 비행집단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정신병적 경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신분열증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더 내향적으로, 반면에 비행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더 외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분열증과 비행집단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공통적으로 높으면서 외-내향성 차원에선 서로 반대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H.J.Eysenck의 三次元的 性格理論 중에서 精神病的 傾向性 次元(Psychoticism:P)은 精神病患者와 社會病質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이 두 離脫集團의 生物學的 類似性에 대한 假定을 가능하게 해주는 特質로 간주되고 있다.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P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衝動的이고 攻撃的이며 情緒적으로 冷淡하고 동정심이나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편이다(Eysenck & Eysenck, 1976). 外-內向性 次元(E-Extraversion-Introversion:E-I)은 개인의 覺醒水準을 평가해주는 次元이다. Eysenck 理論에 의하면 I는 慢性的으로 높은 大腦皮質의 覺醒水準을 나타내며 반대로 E는 비교적 覺醒水準이 낮다고 한다(Eysenck, 1967; Paisey & Mangan, 1982).

Eysenck는 E-I와 P를 연결시켜 異常行動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P가 높으면서 I면 精神分裂症 또는 情動障礙의 鬱症으로 나타나고(Wilson, 1978; Kirkcardy, 1986), P가 높으면서 E면 兩極性 및 躁症의 情動障礙 그리고 社會病質의 特性을 나타낸다고 하였다(Wilson, 1978). Eysenck학파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현 진단체계상의 불일치는 진단의 신뢰성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까지 보고 있다.

本 研究는 Eysenck의 性格構造에서 특히 P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精神分裂症집단과 習慣性 犯罪집단간의 E-I次元上에서의 差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E-I의 特性을 國內의 離脫集團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Eysenck학파의 주장을 검증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세 미만의 청소년들로서 정신분열증, 통제 및 비행의 세 집단 모두 각 30명 씩으로 구성되었다.

精神分裂症集團은 동일한 진단명으로 검사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外來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다(평균연령=18.8세, $SD=1.74$). 非行集團은 暴力과 窃盜(절도범, 15명; 폭력범, 12명; 폭력과 절도범, 3명)의 違法行爲를 저질러 2회이상(평균2.3회) 체포된 경험이 있는 收監者들이었다(평균연령=17.03세, $SD=0.59$). 統制集團은 검사당시 모두 C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 남학생들이었다(평균연령=18.5세, $SD=0.72$)

검사도구

S.B.G.Eysenck와 李 鉉洙共著의 한국판 「성격차원검사」(EPQ)성인용을 각 집단에게 실시하였다.

정신분열증, 비행 및 통제집단간의 P와 E-I차원점수를 一元變量分析으로 통계처리하였다.

결과

P次元에서 精神分裂症集團과 非行集團은 모두 統制集團에 비해 有意義하게 높았다($F=16.29, p<.01$). 그러나 p 는 정신분열증집단보다 비행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통제집단을 중심으로 E-I次元을 비교해본 결과는 정신분열증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內向的이었으며 비행집단은 반대로 통제집단보다 더욱 外向的이라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52, p<.01$).

표. 각 집단별 P와 E척도치

	정신분열증 집단		통제 집단		비행 집단	
	P	E	P	E	P	E
M	2.75	8.75	1.5	10.5	4.6	12.2
S.D	2.31	4.25	1.45	4.38	2.30	3.58
<p>P : $F=16.29, p<.001^{**}$ E : $F=10.52, p<.001^{**}$</p>						

P와 E次元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해본 결과는 先行의 Eysenck학파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따라서 精神分裂症患者과 習慣性 犯罪者들은 P라는 공통된 特性을 가지고 있으면서 E-I次元上에서는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주의를 받지 못해왔던 離脫行動의 개인차에 대한 氣質的 接近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미래의 이탈행동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행동의 個人差에 대한 氣質的 접근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反應性-覺醒水準에 그 초점을 맞춘다. 즉 개인은 자기 높고 낮은 覺醒수준을 갖고 있고 이 높고 낮은 覺醒水準은 最適의 각성수준을 유지하려는 일반화된 욕구상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Malmo, 1958). 각성수준이 만성적으로 높다고 가정되는 精神分裂症은 자신의 높은 각성수준을 最適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되도록 자극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신분열증환자의 臨床的 症候인 情緒의 냉담, 단조로움 그리고 撤回된 행동등은 刺戟回避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Thayer and Silber, 1971). 반대로, 만성적으로 낮은 각성수준의 습관성 범죄자는 각성수준을 最適으로 높이기 위해 항상 강하고 새로우며 활동적인 刺戟을 선택하려는 경향(Eysenck, 1967)을 나타내는 것이다.

Eysenck는 E次元만을 覺醒水準의 지표로 보았지만 최근의 연구동향은 P次元도 각성지표로 보려고 한다. 즉 P가 높은 사람은 P가 낮은 사람에 비해 더욱 각성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습관성 비행집단이 정신분열증집단보다 더 P가 높았던 本 研究結果에 적용시킬 수 있다. E次元을 참조하지 않은 Robinson과 Zahn의 결과(1985)에서도 습관성 범죄자가 정신분열증환자보다 P가 더 높았고 精神生理學的 측정치에서도 더 覺醒水準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P와 E次元이 동시에 높은 사람은 한次元에서만 우세한 사람보다 각성수준이 더 낮을 것이며, P는 E次元과는 독립적이지만 E의 효과를 상충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覺醒次元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Eysenck가 精神病患者를 진단하기 위해 발전시킨 P次元이 오히려 社會病質者, 즉 習慣性 犯罪者들을 진단하는데 더 적합하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本 研究에서는 청소년 정신분열증환자와 습관성 범죄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같은 차원내에서도 연속

선상에 있다고 가정되는 성인 정신병적 장애자들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습관성 범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범죄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현수(1986a). 성격차원론 **인문학연구** 중앙대학교. 7- 8, 1-27.
- Blackbaum, R.(1983). Psychopathy, delinquency and crime. In A. Gale & J. A. Edwards(EDs), *Physiological Correlates of Human Behavior. Vol. 3: Individual Differences and Psychopathology*. London: Academic Press.
- Eysenck, H. J.(1967).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Eysenck, H. J. & Eysenck, S.B.G.(1976) *Psychoticism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Hare, R. D. (1982). Psychopathy and the personality dimensions of psychoticism,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35-42.
- Kirkcardy, B. D.(1986). Personality profiles of psychiatric grou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125-126.
- Malmo, R.B.(1958). Measurement of drive: An unsolved problem. In. M.R. Jones(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 of Neb. 227.
- Robinson, T. N. & Zahn, T.P.(1985). Psychoticism and arousal: possible evidence for a linkage of p and psycho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47-66.
- Rushton, J. P. & Chrisjohn, R.D.(1981).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Evidence from eight separate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11-20.
- Thayer, J. & Silber, D.E.(1971).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arousal and responsiveness among schizophrenic and normal subjec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2), 162-173.
- Wilson, G. D.(1981). Crime and delinquency. In H.J.Eysenck(Ed.). *A Model for Personality*. Berlin: Springer Verlag.

원고 초본 접수 : 1987. 4. 15

최종 수정본 접수 : 1987. 9. 10

Research Note

**Distinction of Schizophrenics' and Delinquents' Characteristics
Based on Eysenck's P and E Personality Dimensions**

In-Hyae Yi and Hee-Jung Yoo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stinction between schizophrenics and delinqu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ased on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of psychoticism and extraversion-introversion. Only male adolescents under 20 years old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Korean EPO was administered to three groups; 30 schizophrenics, 30 delinquents and 30 normals. Results showed that both schizophrenics and delinquents were characterized by higher P than controls, and that schizophrenics were more introverted than controls while delinquents were more extraverted than controls. In conclusion schizophrenics and delinquents show opposite trait on the E-I dimension but common trait on P dimension.